

 상주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		보 도 자 료	
배포일자	2026.3.12.(목)	매수	2매 (사진 별도)
실장	한은주	전화	054-530-3042
담당	김진이		054-530-3029

상주적십자병원, ‘희망진료센터’ , 의료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… 12차년도 사업 시작



위암인 노모를 돌보며 여러 홑잡에서 지냈던 아내와, 형제들은 노인 각종 젊은 부부가 작년 임신하게 되어 출산은 앞두고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.

하지만, 뒤 늦게 알게 된 Sangju Jipsil Hospital 의료지원 서비스를 알게 되어 상담하고, 친절하신 직원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기버려 주시는 직원 분이 계셔서 부록도 더해진 많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
대한민국 한 사람으로 사랑이 정말 감사합니다.

[사진설명]희망진료센터에서 환자 상담 및 지원 안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

감사편지 (일부발췌)

- 상주적십자병원(원장 김혁수) ‘희망진료센터’가 의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.
- ‘희망진료센터’는 상주적십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, 삼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1억 6천만 원과 병원 자체 예산으로 상주시 및 인근 지역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.
- 희망진료센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~100%

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1인당 외래진료는 최대 100만 원, 입원진료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.

- 상주적십자병원은 희망진료센터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연인원 7,38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.
- 특히 희망진료센터의 지원을 받아 2026년 3월 2일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한 태국 출신 임산부 환자는 “경제적인 부담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삼성의 후원과 상주적십자병원 희망진료센터의 지원, 의료진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치료와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”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한편 상주적십자병원은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인 ‘희망진료센터’ 12차년도 사업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- 김혁수 상주적십자병원장은 “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